평택미군기지부지조성및기반시설공사단독수주

이 형 원 SK건설 토목영업담당 상무

"국제적인 시방 기준 건설 공사는 결국 기술력이 수주 좌우"

지난해말 SK건설은미국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평택 미군기지 파슬2구역 용지조성공사를 4,600억원에단독으로 수주하였다. 이 공사는 주한 미군 기지이전사업의일환으로전국에산재해 있는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통합 · 이전시키기 위한 부지 조성 및인프라 구축사업이다.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일원에 232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 상 · 하수도, 전기 ·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을구축하는것이다.

SK건설은이공사를놓고삼성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등과 각축을 벌인 끝에 수주에 성공하였다. 이회사가 이번평택미군기지공사수주전에서웃을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기술 평가에서 좋은점수를받았기때문인것으로알려졌다.

SK건설의 수주 영업라인을총괄한이는 이형원상무. 하지만그는지금까지FED 공사에한번도참여해본적이없었다고한다. 그가주로해온분야는암반역학구조로, 터널및지하비축기지설계를맡아왔다. 결국 그는 전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미군기지 이전 공사에 처음으로 뛰어들어 '대박'을터뜨렸던것이다. 그는"이번미군기지 이전 공사 수주로 최대규모의 최첨단 준영구 군사 주둔시설 공사의 실적을 쌓게 되는것도의미가있지만, 이번공사를수주하면서회사가 민자 사업을제외한 순수 공공부문에서 연간 1조원이 넘는 수주액을 기록했다는것이무엇보다기뻤다"고말했다.

이형원 상무는 인터뷰 초기 FED 공사의 문외한이라 말했다. 하지만 인터뷰가 끝날 무렵그가왜이처럼대형공사를단독수주할수있었는지가늠해볼수있었다. 하나는 철저한 준비에 기초한 조정 능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엔지니어링과 발주 방식 등에 대한해박한지식이었다.

그는 재작년부터 FED가 공사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 분야의 베스트 멤버로 구성된 팀 빌딩에 주력했다. 토취장 문제로 가장난항이예상되는 흙(성토) 관련 설계는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인 다산이앤지와 애드벡을 끌어들여 맡겼다. 전기 · 상하수도 등 유틸리티 분야와 침입 감지 시설이 핵심인 지휘통제정보시스템(CCCCP)의 설계는 각각세계적업체인미국의 SSFM사 및 SAIC사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계적 설계사인 파슨스브링크호프와 공동으로 전체 설계를 관리하였다."한때 합동 사무소에는국내외 인력 100명이모여 방대한작업을하였습니다. 최고의전문가들을통제하고조정하는어려움도있었지만앞서수주한업체의실패사례를복기하며겸손한 자세로협의하다보니 충실한제안서를만들수있었습니다."

이번평택미군기지이전공사는디자인 빌드, 즉 미국식 턴키 방식으로 발주되었다. 따라서, 국제적인시방기준에대한이해와 전문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그는경쟁력을갖추고있었다. 그는 이미 10년전싱가포르의대규모하수처리 터널과 대만의 가오슝 MRT 민자 사업의 설계에 참여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수주에는실패했지만국제적인시방을익히는소중한경험이었다.

그는 특히 이번 공사 수주로 국내 턴키와는 다른 디자인 빌드 방식을 제대로 습득할 수있는기회를갖는데커다란의미를부여했다. 세계어디를가든미군기지이전공사 실적이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직원들의 자신감과 한 차원 높은 역량이 축적되면 그동안해외시장진출이부진했던토목부문 이해외에서도선전할수있기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경험하면서앞으로오키나와미군기지가괌으로 이전되면서 생기는 약 15조원 규모의 군기지이전공사에뛰어들수있게된것을가장의미있는것으로꼽았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